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의리 남매 김보성·이국주 인기 쪽 이으~리



김보성(왼쪽)과 이국주.

김보성, 출연 광고 잇따라 대박...CF스타로 '우뚱'

“무조건 감사드릴 뿐이죠. 지금 가져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의리 사나이’ 김보성이 제2 전성기를 맞았다. 케이블TV 개그프로그램에서 김보성을 흥내내는 개그우먼 이국주의 ‘보성택’ 캐릭터가 인기를 끌었고 비롯처럼 의리를 외치던 김보성도 덩달아 주목받은 결과다.

의리는 대중문화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인기 유행어가 됐다. 의리 원조 김보성이 의리 열풍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 최근 ‘의리 남매’ 김보성과 이국주를 차례로 인터뷰했다. 김보성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외친 의리가 이렇게 부각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면서 “아차피 죽는 날까지 의리를 외치려고 했는데 더욱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성다운 의리의 뜨거운 인기는 ‘의리 없는’ 우리 사회 세태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보성은 이에 대해 “의리가 오랫동안 계속됐던 약육강식과 물질 만능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다”면서 “의리라는 단어에도 정의, 인간적인 정 같이 여러 뜻이 있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보성은 이어 “정의의 시대가 됐으면 한다”면서 “영적으로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의리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보성이 대표적인 의리남으로 부각된 데는 희화화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리 캐릭터를 특색 있게 밀고 나간 덕이다.

김보성은 ‘의리 콘셉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잠깐 호흡을 쉬더니 “콘셉트라는 말은 서운하다”고 답했다. 김보성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알친구들’ 사이에서도 의리 사나이였고 그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1단계 의리가 시작됐다”면서 “이후 왜 인생을 사는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의리를 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태까지 의리 사나이로 쪽 살면서 매우 억울한 면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각오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성은 최근 출연한 남성 화장품과 전통음료, 온라인쇼핑몰 광고 등이 잇따라 대박나면서 CF 스타로 떠올랐다.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그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재기의 기회일 것이다. 김보성은 “광고 요청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일단 의리 진정성을 부각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성은 “광고를 들어오는 대로 다 했다가 나 자신의 몰입 욕 때문에 의리라는 게 깨지면 의리라는 단어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 자신보다는 의리라는 단어를 중시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성은 이어 “정의의 시대가 됐으면 한다”면서 “영적으로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의리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보성이 대표적인 의리남으로 부각된 데는 희화화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리 캐릭터를 특색 있게 밀고 나간 덕이다.

김보성은 “광고를 들어오는 대로 다 했다가 나 자신의 몰입 욕 때문에 의리라는 게 깨지면 의리라는 단어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 자신보다는 의리라는 단어를 중시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업인 영화배우로서는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김보성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만 20편”이라며 “이야기가 오가는 작품이 있는데 올 연말쯤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초지일관 의리 사나이로 국민과 팬들에게 헌신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음 5월 12일辛亥)

36년생 길사가 발생하리라. 48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60년생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72년생 안경 케도로 진입하게 되는 길목에 서있다. 84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행운의 숫자 : 13, 61

42년생 사리에 맞게 처신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54년생 상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66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78년생 무미한 한 곳에 남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70, 76

이국주, 코미디 프로서 ‘보성택’으로 인기몰이

보조석 창문에는 항상 구레나룻과 양면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가족재킷과 비니 모자도 빠뜨리지 않는다. tvN 개그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가정부 ‘보성택’ 역할로 출연하는 개그우먼 이국주(28)의 차 내부 풍경이다. ‘의리 사나이’ 김보성을 재연한 이국주의 ‘보성택’은 시청자들을 배꼽 잡게 하는 데 고치지 않고 온 사회에 ‘우리(의리) 열풍’을 불렀다. 자신도 어떻게까지 큰 인기를 예상했을까. 이국주는 “보성택이 이렇게까지 뜰 줄 전혀 몰랐다. 어안이 병병하다”면서 “사람들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SNS에 글을 올리고 흔적을 남길 때 때로는 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국주는 “저는 안 해본 캐릭터를 하자고 생각하니 중성적 이미지의 여성이 떠올랐다”며 “남성적이고 터프한 캐릭터를 생각하던 중 ‘남자하면 의리지’하고 까불다가 보성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예계 대표적인 ‘의리남’하면 최민수도 있는데 이국주는 왜 김보성을 택했을까. 이국주는 “최민수 선배는 남녀 개그맨들이 많이 따라했지만 김보성 선배를 흉내 낸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면서 “김보성 선배를 흉내 내는 것이 저한테 좀 더 맞았다”고 설명했다. 김보성 캐릭터에 도전한 개그맨들이 있었지만 다들 ‘당이 떨어지지 못하겠다. PD에게 캐릭터를 검사받으려면 미리 밥을 먹어야 한다’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원래 흥이 많아 별명이 ‘흥국’(흥 많은 국주)이었던 평상시 복식 호흡을 자주한다는 이국주한테 김보성 캐릭터는

“입에도 짝 붙더라”고 할 정도로 맞았다. ‘보성택’ 캐릭터가 갈수록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는 비니 모자 아래 빠져나온 구레나룻, 선글라스와 가족재킷 차림의 보성택이 무대에 등장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기 시작했다. 보성택이 뜨면서 원조인 김보성도 덩달아 됐다. 인터넷에는 ‘김보성이 이국주한테 밥 사야 하는 것 아니냐?’이라는 글도 보인다. 이국주는 김보성이 본인 덕을 크게 봤다는 일각의 평가를 부담스러워했다. 이국주는 “김보성 선배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다. 아무리 ‘우리’ 해도 그분은 남자, 저는 여자이고 약간 과거가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국주는 지난 3월 ‘코빅’에 특별출연한 김보성과의 호흡에 대해 “맞춰볼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래도 김보성 선배의 에너지는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국주는 이제 9년차 개그우먼이다. 한때 비호감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기에 지금은 댓글에 ‘크크크’만 쓰여 있어도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9년간 일하면서 올해가 최고인 것 같다”는 이국주는 “그래도 보성택 캐릭터는 사람들이 지켜워하지 않고 유쾌할 때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국주는 시청자들을 자리지 않게 만들 다음 캐릭터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국주는 “남성적 캐릭터가 재미있다”면서 “아직은 준비 단계이지만 남자배우 캐릭터를 했으니 다음에는 남자가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